

시민의 문화생활, 휴식공간으로 되살아난 도심 속 유희공간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산업팀
2024.10.15.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2024.10.18.

충청북도, 버려진 벙커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전면 개방

충청북도가 버려진 벙커 시설에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였다.

‘당산 생각의 벙커’는 1973년 당산의 암반을 깎아 전시 지휘통제소와 총무시설로 활용하였던 공간으로 폭 4m, 높이 5.2m, 길이 200m, 연면적 2,156㎡로 총 14개의 격실이 존재한다. 도는 이 중 규모가 큰 격실을 활용하여 도민들의 ‘영상자서전의 방’, ‘동굴 드로잉 방’, ‘휴식 광장의 방’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이 가능한 7개 공간을 조성하였다.

특히 당산 생각의 벙커는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인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사업’의 핵심이 되는 공간으로, 이번 개방을 통해 전체 사업에 대한 도민 홍보와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체육시설용지 유희지 잔디광장으로 조성

세종시가 새롬동 유희지 7,154㎡를 도심 속 임시 잔디광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였다. 해당 부지는 체육시설용지로 시설 건립 전까지는 비어 있는 상태였다. 부지 근처에 새롬동 주민센터와 학교가 인접해 있고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그동안 공터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복도시 체육시설용지 장단기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체육시설용지의 단기 활용을 위한 잔디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 사업 결과 1,000여 평의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목수국 등의 관목·초화류와 함께 맨발 산책로, 어린이 모래놀이터 등이 설치돼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시 관계자는 “잔디광장이 체육시설 건립 전까지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공간이 되어 줄 것”이라며 “각종 야외 행사 때 활용 가능해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에 기여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당산 생각의 벙커 평면 구성(안)
출처: 충청북도. (2024). 김영한 지사, “당산 생각의 벙커, 새로운 문화·체험 공간 재탄생 기대”, 10월 15일 보도자료.



세종시 새롬동에 조성된 잔디광장
출처: 세종시. (2024). 새롬동 체육시설용지 유희지 잔디광장으로 탈바꿈. 10월 18일 보도자료.